

2022년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 선정 요지

2022년 남계논문상 수상논문으로 이현희박사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Geomorphologic and Cosmogenic Constraint on the Quaternary Ice Sheet History along the Western Ross Sea, Antarctica』이 선정되었습니다.

남계논문상 선정위원회는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진종헌, 학회의 전문가로 이승철 동국대 교수, 박정재 서울대 교수, 한지은 교원대 교수, 이정섭 경상대 교수, 고민경 경북대 교수, 오정식 동국대 교수의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6월 3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최종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현희 박사의 학위논문을 수상논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현희 박사의 이번 학위논문은 극지연구의 사회적 학술적 중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리학자가 극지연구에 도전하여 얻은 최초의 결실이라 할 수 있어 그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위논문의 내용이 최상위 과학저널에 수편의 논문으로 게재됨으로써 전세계 학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당 분야에서 연구의 독창성을 공인받았습니다. 또한 이 박사논문은 접근이 어려운 남극 대륙에서 연구자가 수년 간 실제 현장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성실성과 노력 또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올해의 가장 우수한 박사학위논문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대학원 이현희 박사의 논문 『Geomorphologic and Cosmogenic Constraint on the Quaternary Ice Sheet History along the Western Ross Sea, Antarctica』을 제 18회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논문으로 선정합니다.

2022년 6월 3일
남계논문상 심사위원회